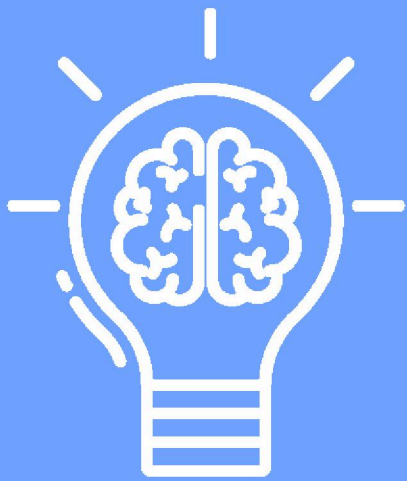


7accine

6월 모평 예방접종!





내용과 목차

01

독서접종

	독서접종	03p
01	지문과 정답	04p
02	예시 사용법	10p
03	비교관계 분석	14p
04	잘못된 상식	17p

02

문학접종

	문학접종	21p
05	인물을 따라가자	22p
06	상황을 파악하자	31p
07	수단과 목적	39p

독서

집중

I

01 | 지문과 정답

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국어는 지문과 문제(선지)로 구분된다.

지문은 많은 정보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 번에 완벽하게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눠서 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REMARK 1 긴 지문은 나눠서 읽어야 한다.

REMARK 2 지문을 나눌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2. 정답은 누구나 납득가능하다

5지선다에서 정답은 하나다.

그 정답은 누구나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누구나'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나의 상식에서 정답이 납득이 가야 한다.

REMARK 3 정답이 왜 정답인지 눈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0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5, 6번 지문(가)

기준을 세워 해당 지문을 나누어라.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 된다.

해설

①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②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①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 ②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기준: 변증법과 헤겔의 변증법을 기준으로 구분하자

변증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고, 헤겔의 변증법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헤겔은 변증법은 ‘논증 방식’이 아니라 ‘논증 대상의 존재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특정 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① 예술 · ② 종교 · ③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① 직관 · ② 표상 · ③ 사유 이다. ①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 ②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 ③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기준: 인식 형식의 차이로 구분하자_ 예술/ 종교/ 철학 (절대정신의 형태)

절대정신의 형태와 절대정신의 형식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자

절대정신의 형태	예술	종교	철학
절대정신의 형식	직관	표상	사유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인간의 외부)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인간의 내부)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 [특성] 직관 + 표상 = 사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 [특성] 예술 + 종교 = 철학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①예술은 직관하고 ②종교는 표상하며 ③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①초보 단계의, 종교는 ②성장 단계의, 철학은 ③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 된다.

기준: 인식 형식의 차이로 구분하자_ 예술/ 종교/ 철학 (절대정신의 형태)
 절대정신의 형태에는 단계적 등급이 존재한다.

절대정신의 형태	예술	종교	철학
단계적 등급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완숙 단계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
 ⇒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

03

정답은 누구나 납득가능하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6번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 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해설: 정답 4번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인간의 외부)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인간의 내부)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

④번 선지를 해석하면

먼저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간 내부의 활동이기 때문에 ‘표상’으로 볼 수 있지만, 설정 중 특정 개념을 활용했다면 ‘사유’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에서 ‘이’는 새롭게 설정된 개념이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새롭게 설정된 개념을 통해 일어난 활동이기 때문에 ‘사유’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해당 선지의 틀린 부분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02 | 예시 사용법

1. 예시를 통해 중요문장을 설명한다

왜 예시를 사용하는가?

중요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사용한다.

중요문장이 너무 요약적이라서 글을 읽는 독자에게 실감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중요문장의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예시로 글을 길게 풀어 쓰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든, 결국 중요문장과 예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REMARK 1 중요문장과 예시는 대응하며, 이 대응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01

예시를 통해 중요문장을 설명한다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16~20번 지문

예시를 확인하며 해당 지문을 읽어라.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중략)

해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중요문장	예시
전통적 인식론자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베이즈주의자	믿음은 정도의 문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베이즈주의자의 ‘믿음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에서 믿음에 따른 명제의 참·거짓 판단의 결과 수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 A, 명제 B를 설정함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가정]

같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 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명제 A :오늘 비가 온다	명제 B :내일 비가 온다
-	약하게 믿음
새롭게 알게 된 사실 :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	
참 (100%로 비가 옴)	강하게 믿음

[중요문장]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 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REMARK 2 중요문장과 예시문장의 1:1 대응을 정리할 때, 색깔 펜을 사용하자.

03 | 비교관계 분석

1. 비교하기 위해선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특정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대상을 특정 기준으로 비교한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비교문장은 최소 2개의 비교대상들과 비교 기준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교문장이 생각지 못하게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서, 비교 대상을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 종종 있고, 이로 인해 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꼭 어떤 대상들이 비교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상들을 확인하여, 좀 더 분명하게 비교문장을 읽어야 한다.

REMARK 1 비교문장에서 꼭 비교대상을 확인하자. 놓칠 것 같다면 표시라도 해두자.

REMARK 2 비교기준 역시 확인하자. 놓칠 것 같다면 표시라도 해두자.

2. 최상급 표현 역시 비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보자.

“잠을 가장 많이 자는 동물은 ‘두발가락 나무늘보’입니다. 사람은 평균 8시간의 수면을 가지요. 그에 비해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평균 20시간 잠에 취해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비교대상은 ‘두발가락 나무늘보’와 ‘다른 동물들’이며, 비교기준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자나’입니다. 최상급 표현 역시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표현의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REMARK 3 최상급 표현에서도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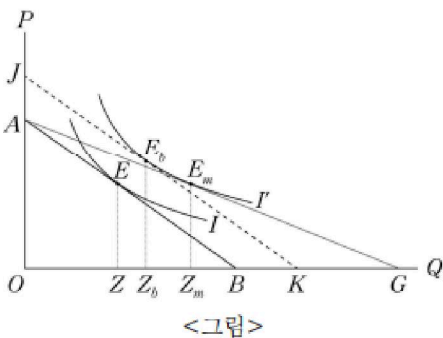
01

비교하기 위해선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

2022년 3월 모의평가 7번

(나)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Q)과 사용재의 양(P)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 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 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 로 나타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 가 된다.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E' 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 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 로 변한다.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_m 이 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7.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E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 ② 정률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보다 정액 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 ③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_b 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_m 만큼 늘어난다.
- ④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 에서 선분 AC 로 이동한다.
- ⑤ 점 E_b 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_m 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_b 에서 Z_m 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해설: 정답 5번

[주어진 지문]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해당 지문에서 확인할 수 사실

- 정률지원금이 정액지원금보다 효과적이다.
- [실증연구] 정액지원금이 직접소득증가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⑤번 선지]

점 E_b 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E_m 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_b 에서 Z_m 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해당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득금액이 감소된다는 인과관계

지문에서는 정률지원금과 정액지원금의 비교, 정액지원금과 소득증가의 비교관계에 대해서 정리했다. 반면 선지에서는 정률지원금과 소득감소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04 | 잘못된 상식

1. 기존에 배우는 상식이 잘못된 상식일 수 있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다.

타성에 의해서
혹은 널리 퍼진 지식에 의해서
검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식과 상식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수능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상황을 독서지문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01

기준에 배우는 상식이 잘못된 상식일 수 있다

2013년도 수능 21~24번 지문

해당 지문을 분석하라.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해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논증		
종류	연역	귀납
정의	전제가 참이면 확실히 결론이 참이다.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참이지는 않다.
지식 확장	확장하지 않는다.	확장한다.

먼저 위에 문단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그리고 이 표를 기반으로 하여,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면 ‘확실성’이라 말할 수 있다. 연역은 전제가 결론을 확실히 보장하지만, 귀납은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성을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바꾸어 인식하면 ‘예외가 있냐, 없냐?’로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역은 ‘예외가 없지만’, 귀납은 ‘예외가 있다.’

이 다음 문단은 귀납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인데,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서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면, 앞에 있는 두 반응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설명하겠다. 기억대로, 익숙한 대로 분석하면 빨간 밑줄이 있는 부분에 눈이 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애 배운 내용이 나왔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 녹색 형광펜을 친 곳을 보자. 거기에 분명히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다. 즉, 기존의 지식을 설명되는 정의를 쓴 부분은 귀납 ‘중에서’ 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빨간 밑줄을 친 부분은 귀납에 대한 전체 설명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빨간 밑줄 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귀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빨간 밑줄을 친 부분이 지칭하는 귀납은 무엇일까?

****단순 매거직 귀납**

-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이제 귀납과 연역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포퍼는 과학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물론 수단으로 관찰을 이용하고 관찰을 귀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이 온전하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포퍼는 반증이 나왔을 때 그 논증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연역적이라고 말하면서, 과학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정당성을 기반으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포퍼는 말한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포퍼는 귀납 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반증가능성’이란 개념을 만든다. 즉, 귀납적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이론은 언제나 반증을 당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수많은 비판을 받고 그 비판에 대해 잘 대처했기 이 이론은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 ‘반증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라 말해도 무방하며, 반증가능성을 통해 과학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다고 포퍼는 말한다. 반대로 과학이 아닌 신앙과 같은 경우 반증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신앙적 지식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REMARK 1 잘못된 상식을 피하기 위해서, 지문에서 정답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 국어 시험 역시 논리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의 이유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첫 째로 지문에서 정답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추론문제의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에서 정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집장

II

05 | 인물을 따라가자

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물론 인물의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REMARK 1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인물의 행동은 중요사건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의도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2.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은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

고전소설이 적힌 시대에는 한 개인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은 많다.
별호(別號), 명호(名號), 외호(外號)
계급(階級)과 입신양명에 따른 관직(官職)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표현들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지금의 시대에서 이같은 표현들은 정말 생소하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물의 이름들을 확인해야 한다.

REMARK 2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자.

0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24~27번 지문

해당 지문을 인물을 확인하며 읽어라.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북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 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툭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몰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니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그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잠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 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잡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흥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른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 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푹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니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그 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잠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 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오.”

김달채 씨는 영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실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희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확인 가능한 등장인물은

○ 김달채 = 그

△ 사복경찰관들 = 사복들

□ 잡혀가는 학생

△¹ 사복차림 청년 하나

중략 이전에 김달채 씨는 사복경찰관이라고 오해 받을 행동들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다. 중략 이후, 이 희열을 느끼며 김달채 씨는 학생들이 데모하는 현장에 자발적으로 가지만, 이 현장에서 진짜 사복경찰들이 학생들을 마구 잡아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김달채 씨는 사복경찰에게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라고 소리쳤다.

진짜 사복경찰 중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김달채 씨에게 “당신 뭐야?”라고 물어봤고, 김달채 씨는 평소처럼 사복경찰관이라고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만, 진짜 사복경찰관은 관심도 없었다.

김달채 씨는 다시 무기력함을 느끼며, 주어진 소설 지문이 끝난다.

이처럼 특정 인물들을 확인하면서 소설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다.

REMARK 3 대사나 행동이 누가 했는지 헷갈린다면, 표시해서 혼동을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글이 길어지면서, 누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착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착각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게 한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소에 표시를 하면서 인물들을 구분하고,

특정 인물이 한 행동과 대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02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28~31번 지문

해당 지문을 인물을 확인하며 읽어라.

이때 태보 꺾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르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낫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되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인명이오면 재천이옵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 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꺾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옵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점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훘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피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뉘라서 볼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 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해설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웅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뒀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인명이오면 재천이옵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옵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간헐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왔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춘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후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 병과 심회가 올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 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뒤편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균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누라서 볼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 차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처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대사를 하면서 등장한 인물은

○ 박태보 = 태보 = 한림

△ 제원(諸員)

□ 박태보의 부인

◇ 아이 오륙인

◇ 상(上) = 임금

태보가 한림으로 불리는 것처럼, 한 인물에게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무슨 대사를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06 | 상황을 확인하자

1. 시는 상황으로 이루어져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쩌면 기존의 단순화된 사고는 문제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을 긍정과 부정만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우리들이 감정은 그 정도로 단순하고 깊이가 없는가?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작가가 시를 쓰는 이유는 세밀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물론 수능에서 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로 만들지만, 이는 시에서 전달되는 감정을 단순하게 긍정과 부정으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에서 문제로 나오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REMARK 1 절대로 시어를 긍정과 부정으로 단순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2.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을 확인하자

논리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 보기를 통해 특정 이분법이 적용된 관점을 출제자는 제시한다.

물론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출제자가 <보기>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이분법적 분류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REMARK 2 <보기>를 통해, 특정 기준으로 시어를 구분할 수 있다.

01

시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20번

(나)

오늘, 북창 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해설: 정답 2번

①번 [상황확인]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③번 [상황확인]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④번 [상황확인]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⑤번 [상황확인]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②번 [상황확인]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은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보옥도 가지고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확인가능한 태도는 산이 분명 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덕성을 표현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산의 덕성 그 자체를 산은 표면화하려하지 않으며, 이는 자랑하지 않는 차분한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02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을 확인하자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19번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대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솔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19. <보기>를 참고할 때,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윤페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 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정답 3번

보기에서 시간의 흐름의 따른 공간의 구분, 다시 말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과 ‘비극적인 겨울’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두 공간 사이에 관계를 확인하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C]

REMARK 3 글에는 문맥이 있으며, 알기 위해 모르는 부분의 앞뒤를 읽어보고 관계를 확인하자.

‘씨레나무’는 홍수로 쓸려내려간 나무 혹은 뗏목을 말하는데, [C] 이후에 젊은이들은 뗏목을 타고 항구로 가면서, 사람이 없어지는 농촌의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해당 앞내강의 공간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03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을 확인하자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27번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 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크 안하면 올림퍽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 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톡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겹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몰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통무니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그 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잠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 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섰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잡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 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흥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인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해설: 정답 5번

보기에서 주어지는 이분법 관계는 김달채 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허구적 권력 표지를 사용하는 김달채 씨에 대해

- 권력관계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타인: 사복경찰관을 만나기 전까지의 사람들
- 권력관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진짜) 사복경찰관

으로 구분되는 이분법 구조를 정리할 수 있다.

비표를 단 청년은 사복경찰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5번선지를 확인하면, 일단 ‘권력관계를 승인하는 것’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한편, 지문에서 김달채 씨와 학생들이 맺은 유대관계를 확인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김달채 씨와 학생들이 친해지는 과정을 확인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말할 수도 없다.

결국 ⑤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07 | 수단과 목적

1.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글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을 확인하여 수단을 분석할 수 있다면 글을 더 분명하게 읽어내려 갈 수 있다.

글을 읽어내려 가면서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글쓴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이 단원에서는
선지에 적용된 수단과 목적 관계를 확인하려 한다.

REMARK 1 선지의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여 읽자.

01

선지에서 수단과 목적 관계 확인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22번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좀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대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솔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 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22. **목화** 와 **북창**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해설: 정답 1번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가) '목화'와 '박쥐 나라'의 이미지를 연결 (나)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
②	(가) '목화' (나) '북창'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
③	(가) '목화'에 '솜이 쳐'라고 한 (나)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
④	(가)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 (나)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음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
⑤	(가)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 (나) '북창'을 통해 본 '보옥'	부끄러움의 정서 안타까움의 정서

산이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을 연결하기 때문에, 2번선지의 '북창'을 '저승의 밤'이 아닌 산을 보는 통로라고 말해야 한다.

(나)에서 변하는 것은 사람이며 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3번선지의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서 산을 보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번선지의 선망하는 산과 분리된 이미지는 잘못된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나)에서 산은 '보옥'을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옥'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5번선지의 '안타까움의 정서'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에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③ (가)에서 '목화'에 '솜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02

지문에서의 수단과 목적 관계 확인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29번

이때 태보 꺾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낫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시,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뒀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인명이오면 재천이우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꺾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서 있거늘 겹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동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훘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피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증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증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볼들라.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증전이 거처해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해설: 정답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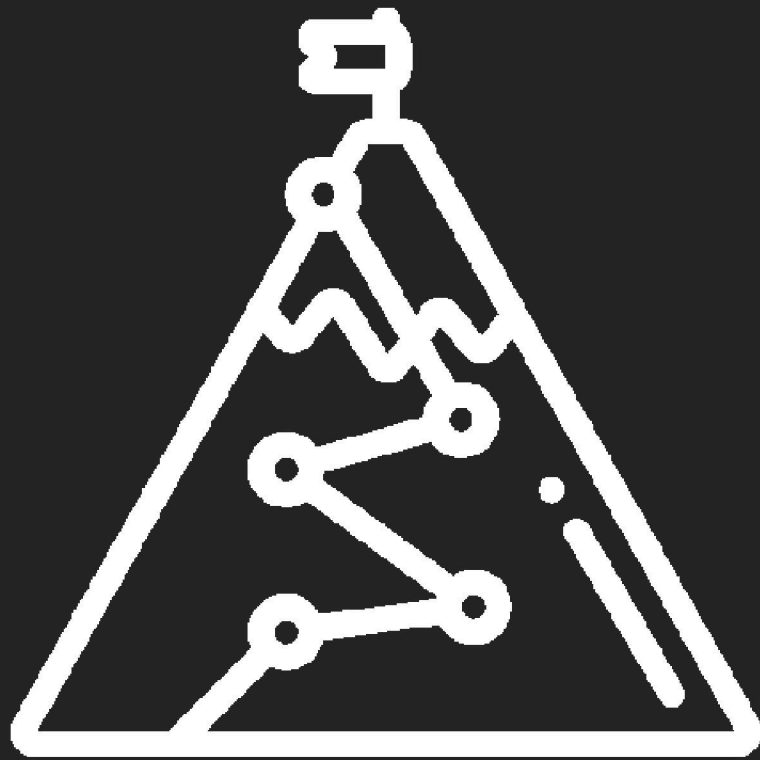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금부’ ‘한 곳’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
②	‘진도’ ‘외관’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 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
③	‘이화촌’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
④	‘과천’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
⑤	‘심산궁곡’ 을 ‘성내 성외’와 대비함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

임금이 미복으로 순행하다가 ‘한 곳’에서 아이들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이후 임금은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따라서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라 말할 수 없다..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Gm